## "645억 전남기록원, 엉터리 용역·깜깜이 회의로 부지 선정"

김주웅 도의원, 후보지 선정 집중추궁

자격 미달 업체 '제멋대로 용역' 신뢰도 지수 등 정확성 '물음표' 암실행정…4순위 장흥 최종입지 전략회의 통한 '짜맞추기' 의혹

립사업이 도의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엉터리 용역에 기반해 애초 4순위였던 전남도 립대학교 장흥캠퍼스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 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두고 '짜맞추기' 의혹 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김주웅 의원(더불어민 주당·비례)은 22일 열린 2025년 상반기 도정질 문에서 전남기록원 건립사업과 관련 "수백억 규 모의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공론화 과정없이 깜 깜이 용역을 진행하고, 깜깜이 회의를 통해 부지 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립을 위해 7,200만원 규모의 '기록원 건립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지난해 7월 전남도 제외 사유는 마치 장흥으로 미리 정해놓고 끼워 립대 장흥캠퍼스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용역 이후 매우 이례적 으로 담당 부서인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의 두차 레 비공개 전략회의를 통해 건립지를 최종 선정 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전략회의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기록원 건립 후보지 검 토'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장흥으로 후보지 를 확정한 뒤 나눈 대화들로 확인됐다"고 지적

김 의원은 이어 "올해 3월 10일 진행된 전략 회의에서도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을 1안



으로 상정했다"면서 "두 차례 전략회의 결과 보고 서만 본다면 장흥의 전남 기록원 설립 결정은 용역 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 던 것으로 보는게 상식적 인판단이다"며 사전짜맞

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부실 용역 의혹도 거듭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록원 후보지로 무안 오룡지구가 1순위, 전남도청 F주 부실 용역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기록원 건 차장 2순위, 순천 3순위, 장흥 4순위, 강진 5순 위였다"며 "담당 실과와 용역업체에 직접 문의 한 결과, 강진 등은 부지 용도 변경에 시간이 걸 려서, 도청 주차장은 협소, 오룡은 부지 매입비, 순천은 지역균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해 결국 남은 것은 장흥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었다 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진 등의 제외 사유인 부지 용도 변경 기간은 대부분의 공공건축에서 필요한 절 차이며, 면적이 협소하다는 도청 F주차장은 장 흥캠퍼스 건립 예정지보다 더 넓다"며 "순천 옛 동부청사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배제한 전남도는 645억원이 투입되는 전남기록원 건 것은 앞으로 동부권에는 어떠한 행정기관도 배 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등 다른 부지들의 맞춘 것 같은 의혹이 타당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특히 "기록원 설립 용역사 직원들 이 용역 자격으로 요구하는 관련 학위가 없었다 는 것을 전남도가 뒤늦게 파악했음에도 용역을 진행했고, 계약 해지 대신 감액 조치에 그쳤다" 며 "용역업체의 자격 미달에 대해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방계 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또 "용역 결과의 핵심은 최종 후보 지를 도출하기 위한 지표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전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구성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 지표에 의해 후보지 추천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부지를 선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만들어진 용역 결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 이고 핵심적 요소인 '신뢰도 수치' 결과가 용역 에는 없다"고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용역사로부터 직접 데이터 를 확보해 신뢰지표를 계산해 본 결과, 총 9개의 설문 중 5개인 과반 이상에서 신뢰도 지수를 충 족하지 못했다"며 "이는 용역 결과와 자문위원 회 결과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 며, 용역 결과는 전혀 참고되어서는 안될 엉터리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록관리 직종에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해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행정 학과 학사 과정을 이수한 다음, 기록관리 대학 원 혹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도내에는 현재 기록관리학 과정을 이수하는 대 학원은 전남대가 유일해 기록원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학문적 • 전문인력 기반도 부재한 상태며, 이는 전남도립대와 목포대 통합 효과를 기대한다는장흥의강점과도맞지않다"고덧붙

김 의원은 "장흥에 추진되는 기록원은 암실 행정에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부지 선 정 과정과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용역은 자격 미달 상태였고 엉터리 결과에 보고도 편집되는 등 기록원 건립은 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진행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책임연구원이 없는 용역사의 자격과 관련해 3곳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용 역을 유지하면서 지연 배상금을 받는 게 더 낫다 는 결론을 받았다"며 "두차례 전략회의는 장흥 캠퍼스 본관동 등이 글로컬대학 부지에 포함돼 내부적으로 부지 변경을 다루기 위해 진행됐다" 고 해명했다.

이어 "용역기관 전문가들을 통해 기록원 입지 가 선정된 만큼 결과에는 큰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제기된 용역결과의 신 뢰도 수치 등은 전문기관과 다시 상의하겠다"고 정근산 기자

## 김정이 도의원 "도교육청 800억 태블릿 PC 무용지물"

## 전남형 학습 플랫폼 개발 지연 온라인 학습멘토링 도입 촉구

전남도교육청이 수백억원을 들여 보급한 교 육용 태블릿 PC가 콘텐츠 부족 등으로 활용되 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 김

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은 전날 열린 2025년 상반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이 대블릿 PC를 학교마다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PC 활용에 중요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J-MOOC) 개발은 지연돼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J-MOOC'는 3년 전부터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됐



지만,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 다"며 "급기야 도교육청 은 이제서야 타 시도 교육 청과 함께 공동 개발하겠 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 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남 학생들은 학원이 부 족한 탓에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선택이 쉽지 않 다"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EBS나 민간 인 터넷 강의 등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학습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800억원 이상 을 투입해 도내 학교에 태블릿 PC를 보급했지 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5% 내외에 그쳐 콘텐츠 개발과 활용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 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수백억원을 들이지 않더라도, 학 생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 강의와 대학생 멘토링 을 결합하면 30억원만으로도 전남 학생 모두가 원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지역 아이 들의 선택권 없는 교육 현실이 결국 학령인구 유

출을 부추기고 있는만큼 더 늦기 전에 정말 필요 한 콘텐츠와 학습 환경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 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J-MOOC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3년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교육 청 단독으로는 역량이 부족해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콘텐츠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해 실제로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 정근산 기자

## 신입, 편입생 모집안내 <학사, 석사, 박사과정>

Bethel College & Seminary는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지구촌 선교와 영적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태동 되었으며 현재 세계12개 지역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모집학과 교육학(심리학, 스피치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신학, 경영학

신설학과 대체의학과, 한글국제학과, 음악학과, 웰다잉학과

모집기간 수시모집 (인원: OO명)

웰다잉학과 교수진

신경원 웰다잉학과 교수 국제공인 죽음 교육수련감독 FT.Ph.D,ND 한국싸나톨로지협회 협회장 고려대 죽음교육연구센터 센터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부총재

조완규 웰다잉학과 교수 사)한국웰다잉교육협회 이사장 한국인재육성개발원(주) 대표이사 원장 한국웰다잉강사협의회 회장 전)동아대학교 교수, 교육학박시

조선형 웰다잉학과 지도교수 교육학박사

국제웰다잉협회회장 웰다잉 전문강사 웰다잉 심리상담가 논문: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 매주 화요일 4시 / 7시 강의

웰다잉 전문강사 / 웰다잉 심리상담사 웰다잉 지도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대면 - 비대면 강의 010-3623-9696

Bethel College & Seminary U.S.A. 한국분교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96-1 (컴벌랜드 빌딩) TEL: 062)526-6523~4

